

말씀의 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1~12>

성탄주일인 오늘은 본문에 등장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리라는 예언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압박을 받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시대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만 오직 메시야의 도래였고 그 메시야가 압박과 실망을 헤아릴 수가 있다고 믿어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야의 탄생을 고대하며 그가 오실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메시야가 태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별을 연구한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24:17절을 보면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통치기간에 출어져있던 유대 디아스포라를 통해 토라문헌이 널리 퍼져있었고,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자료로 권위있게 사용되었습니다. 장차 메시야가 태어나면 천체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별을 연구하던 중, 마태복음 2:2절을 보면 갑자기 별이 나타났고 그 별이 움직임이 아주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시 별을 따라나섰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가 경배드린 사람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별이 나타나자 즉시 준비해둔 선물을 들고 고향을 떠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할 3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경배하러 갈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끝까지 별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다. 분명 이건 왕이 태어날 징조니까 왕궁으로 당연히 가야겠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마구간에서 이 별의 주인공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결과,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결과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 상식, 내 고정관념으로 별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히브리서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분명 더 나은 제사가 있었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 상식선에서 배운대로 진정한 고민과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릴지를 고민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앙을 잡아 그 가족으로 옷을 지어 입힌 영적인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2: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옆드려 아기에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이미 의미를 가지고, 미리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왕에게 드릴 예물을 미리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또 몰약은 메시야를 의미합니다. 구원자,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자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더 나은 경배’를 위해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성탄절기를 보내고 그저 지나가는 행사로 여기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길은 날마다 새롭게 특별함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를 내려놓고 끝까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2: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경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경배하러 갈 때,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구전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은 모두 세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멜키우스라는 노인이고, 발타 자르라는 청년이고, 가스파르라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대인이었고 그 시대 브라만과 맞먹는 사제계급이며 꿈을 해몽하는데 특출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국가자문위원으로 대접을 받는 지도층이었지만 그들은 물질이나 명예보다 메시야를 만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오늘의 페르시아,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지대,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즉 이라크부터 걸어서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40여일을 걸쳐 1600여 km를 낙타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별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표현될 만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을 횡단하며 경배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경배와 예배에는 이런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손해도 모험도 필요합니다. 때론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인내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하고, 메시야가 어디서 출생할지를 성경적으로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게다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헌신과 수고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요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지나치게 편리를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길에 조금도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진정 경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나를 내려놓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신 선물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경배하러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의 성탄이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주님께 예배하러 오는 일이 진짜 기쁘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기쁨, 예배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너무도 많이 상실되어있습니다.

영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은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12월 24일 성탄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1. 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시편 11:4~7

말 씀 선 포 ----- 이 강화 목사

코람데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